

앨빈 플랜팅가 신 · 자유 · 악

이경직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

서평을 쓰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처럼 후회한 적이 없다. 어떤 책에 대해 평가를 하려면 그 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소개해야 하는데, 플랜팅가의 『신 · 자유 · 악』은 정독을 요구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 마감일을 넘기고 말았고, 이번 호에는 꼭 서평을 보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원고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좋은 서평은 독자로 하여금 그 책을 읽고 싶게 만들고, 그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의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

번역자 김완중은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연세대 석박사과정에서 철학을 공부한 차세대 기독교 철학자이다. 이 책의 번역은 신뢰할 만하다. 역자가 거의 15년에 걸쳐 이 책을 공부하면서 번역했을 뿐 아니라 우호용 교수와 함께 정독하면서 초역을 다듬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원서를 공부하면서 번역하는 일은 드물고도 귀한 일이다.

저자 앨빈 플랜팅가(1932년생)는 기독교 철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이지만, 그의 중요성에 비해 그리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네덜란드 이민자 가정에

서 태어난 그는 오늘날 개혁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의 기독교 대학 중 하나인 칼빈칼리지에서 19년간 가르쳤고 1982년부터 노틀담대학교에서 오브라이언 석좌교수로 가르치다가 은퇴한 후 2010년 칼빈칼리지로 돌아왔다. 그는 또한 미국 철학회 회장과 기독교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플랜팅가는 기독교 철학이 '등근 사각형'과 같이 모순된 개념이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20세기 중반에 몇몇 기독교 철학자들과 뜻을 모아 기독교 철학 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분석철학이 지배적이던 미국 철학계에서 날카로운 논리와 분석도구를 사용해 종교철학, 인식론, 형이상학, 기독교 변증 분야에서 기독교 철학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식론 분야에서 그의 대표작은 『신과 타자의 정신들』(God and Other Minds, 1967년, 이태하 역, 살림)과 『필연성의 본질』(The Nature of Necessity, 1974년), 『신, 자유, 악』(God, Freedom and Evil, 1989년), 『보증된 기독교 신앙』(Warranted Christian Belief, 2000년) 등이다. 최근에는 기독교와 과학이 양립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Where



the Conflict Really Lies: Science, Religion, and Naturalism, 2011년)를 출간했다. 그의 두 아들은 칼빈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두 딸은 각기 목사와 카메룬 성경번역선교사로 사역 중이다.

『신·자유·악』을 이해하려면 플랜팅가의 이전 작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웨인즈주립대학교(Wayne State University) 철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무신론 철학자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요구에 시달렸다고 회고한다. 그는 그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끌어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입증하는 논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결

론을 담은 책이 1967년에 출간된 『신과 타자의 마음』이다. 그에 따르면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믿음처럼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논증이 필요 없는 기본신념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들에게 지성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



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이 전제는 증명되어야 할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는 참된 상식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도 신앙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상식이며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1963년에 칼빈칼리지의 철학교수가 된 플랜팅가는 그의 철학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게 된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면에서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전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을 만드시거나 허용하실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악의 논리적 문제로, 악의 존재는 그런 하나님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랜팅가는 악의 논리적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자유롭지만 악을 선택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선하셔도, 자유로운 도덕적 피조물이 있어야 도덕적 선이 의미 있다면 악이 있는 세계를 창조하시기를 바라실 수도 있다. 많은 학자들은 플랜팅가의 이 주장이 도덕적 악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여겼다. 달리 말하면,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도덕적 악과 양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키(J. L. Mackie)는 플랜팅가의 주장이 '전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자연적 악을 만드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플랜팅가의 입장은 자유의지 옹호론(Free Will Defense)이라 할 수 있다. 매키와 같은 학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적 악이 양립할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플랜팅가를 비판한다. 플랜팅가가 이 책에서 보여준 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플랜팅가는 자유의지 옹호론과 자유의지 신정론을 구분한다. 자유의지 신정론은 자유의지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답이다. 플랜팅가는 이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지전능전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악의 존재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의 자유의지 옹호론은 전지전능전선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악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작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플랜팅가에 따르면 신이 도덕적 선만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지하고 전선한 신이 도덕적 선이 있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는 그러한 신이 악도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따라서 매키와 같은 학자들의 전제, 즉 자유의지를 지닌 하나님의 존재와 악의 존재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전제는 필연적으로 참이 아니다.

이 책의 1부가 매키와 같은 학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소극적 작업을 담고 있다면, 2부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적극적 작업을 담고 있다. 플랜팅가는 전통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사용되었던 논증 중에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을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 작업을 해낸다. 이 책 이후 그의 작업은 이 일을 더 치밀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분량은 적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이 플랜팅가의 의도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기독교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일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이 책은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플랜팅가의 연구는 너무 분석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 유명세와 업적에 비해 한국 독자들에게 잘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김완중, 우호용 두 분의 역자가 심혈을 기울여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이 책을 한국 독자에게 소개해주신데 깊이 감사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기독교 철학계의 논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시간을 내어 이 책을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독한다면 기독교 철학의 새로운 세계를 맞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쉽지만은 않은 책을 오랜 세월 정확하고도 쉽게 번역한 두 번역자와,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책을 출판하기로 용단을 내린 SFC 출판사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이경직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Konstanz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논문을 썼다. 백석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신학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으로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Platons Raumbegriff』,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철학의 모색』,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플라톤과 기독교』가 있고, 공저로는 『신앙과 논리』, 번역서로는 『사랑의 모델』, 『헬레니즘 철학』, 『철학자 예수』, 『공간 개념』, 『기독교철학』 등 13권이 있으며, "이신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믿음 이해"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